



해외1 KBA
RR 도넬리와 함께
신형 디지털 인쇄기 개발



KBA는 RR 도넬리와 함께 디지털 인쇄기를 개발, 2012년 드루파에서 첫 선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양사간 협력으로 유럽의 인쇄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협정은 상업, 신문, 포장, 보안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잉크젯 인쇄기의 개발, 제조 및 판매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로써 KBA는 RR 도넬리의 애플로 모델에 차용된 디지털 기술을 자사의 인쇄기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받게 되었고, 이 협정의 결정체는 2012년 뒤셀도르프에서 개최되는 드루파 전시회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KBA의 헬게 한센 CEO는 “KBA는 지난 18개월 동안 전 세계의 현재 및 미래 전자 인쇄 기술을 분석하는 데 투자하였고, 오랜 조사 끝에 기술, 경험, 정밀성 등 모든 면에서 함께 할 수 있는 협력사는 RR 도넬리 외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양사가 협력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였다. 또한 “여기에는 현 기술에 대한 판매 및 기술지원 협정,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 혁신적인 전자 인쇄 기술을 함께

개발하여 인쇄업계의 활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R도넬리의 토마스 퀴란 CEO도 “1천여 명의 기술 인력이 공동 연구에 임하는 만큼 차세대 전자 인쇄기술을 도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공동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이어 갔다. 덧붙여 “이번 협정으로 현재의 고객뿐만 아니라 아직 진출하지 못한 시장의 고객에게도 도넬리의 기술력을 소개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는 소감을 전했다. KBA와 RR 도넬리 간의 협정은 하이텔베그와 리코의 동반자 선언, 코닥과 코니카 미놀타의 글로벌 판매 계약에 연이어 이루어진 것으로 인쇄업계의 업체 간 협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이텔베그는 리코의 일부 기기에 대한 판매 및 기술지원에 대한 유통 계약을 체결했고, 코닥과 코니카 미놀타는 양사에서 선정한 디지털 인쇄기 제품군 중 일부에 대해 공동 판매한다는 내용의 협정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2010년 3월 캐논-오세 합병, 2010년 12월 오세-만로랜드 파트너십 체결 등이 이루어진 바 있다.

해외2 에스코아트워크
다나허에 인수



에스코아트워크(EskoArtwork)는 자사의 지주회사인 악셀그룹(Axcel, 덴마크 투자사)이 다나허(Danaher, 미국 제조사)와 매

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에스코아트워크사의 주식은 3억5000만 유로(한화 약 5420억 원)의 매매가에 모두 다나허사로 인계되며, 인수 과정은 올해 상반기 중 마무리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에스코아트워크의 카스텐 크너드센 CEO는 이번 인수에 대해 “에스코아트워크가 계속 발전해 나가기 위한 대단히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었다”고 설명하며 “에스코아트워크의 전 경영진은 다나허측의 의욕적인 자세에 상당히 고무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악셀 그룹은 2005년 에스코 그래픽사를 비공개 계약으로 인수하고, 2년 후 벨기에의 경쟁사였던 아트워크 시스템을 1억9600만 유로(한화 약 3318억 원)에 인수하여 글로벌 프리미디어(Pre-Media) 기업으로 만들었다. 악셀사의 시거드 리리안펠트씨는 “우리는 이제까지 에스코아트워크에 해왔던 투자에 대단히 만족하고 있다. 악셀이 투자하면서 에스코아트워크는 동 분야에서 세계 선두의 위치를 차지했다”며 “이는 단순히 에스코와 아트워크의 합병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연구 개발에 대한 꾸준한 투자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를 수 있었던 성과”라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에스코아트워크의 창의력을 높이 평가하며 “악셀이 투자하는 동안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악셀이 다시 성공적으로 퇴장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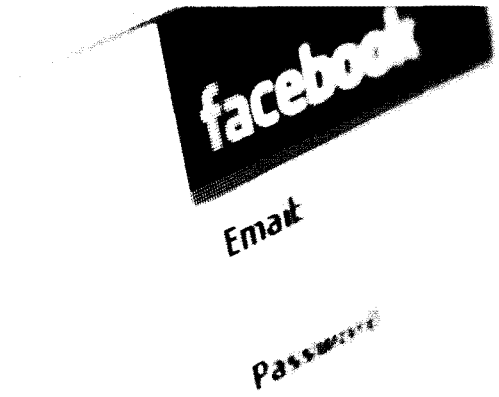
인수 과정이 끝나면 에스코아트워크는 다나허의 제품 동일화(Product Identification) 계열 중 일부가 된다. 다나허의 매트 트레로토라 부사장 겸 제품 동일화 그룹이사는 “에스코는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우수한 제품과 인력을 겸비하고 있다”며 이번 인수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에스코아트워크사는 벨기에에 본사를 두고 있고 전 세계에 1050명의 직원이 있으며, 2010년 1840만 유로(한화 약 285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다나허사는 4개 부문, 총 7개 분야로 구성된 사업 영역에서 독창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 제조, 판매하고 있으며 전문 기기(환경 및 측정기), 의료(생명 과학 및 진단, 치과), 산업 기술(모션, 제품동일화, 틱새 비즈니스), 공구 및 부품(수공구) 등에 진출해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해외3 비즈니스 폼즈 익스프레스

소셜미디어에 대한 인터뷰 실시

영국의 인쇄사인 비즈니스 폼즈 익스프레스(Business Forms Express)는 이서 페이스북 페이지 운영을 위해 자사 웹사이트는 폐쇄하기로 결정하고 이번 결정에 대한 인터뷰를 시행해 관심을 모았다. 업계 관계자들에게 진행된 이번 인터뷰에서는 주로 소셜미디어의 영향력과 이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강조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전시회 마케팅 매니저인 피터 오포드(노스프린트 2011)는 “우리는 소셜미디어를 이벤트 홍보의 필수 요소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여 관람객과 직접 소통하



고 연결될 수 있다는 데에 의미가 크다. 전시회 관련 소셜 미디어를 열면 모두 한 공간에서 소통할 수 있으며 방문객 유치, 논쟁, 관련 자료에 대한 링크 포스트, 최신 전시회 소식 포스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셜 미디어를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크리에이티브 서비스 다렉터(커뮤니시스)인 필 단은 “기업이나 유명 브랜드에서는 소셜 미디어가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다.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자사 브랜드의 이미지는 기업에서 직접 관리하고 싶어 하지만, 소셜 미디어에서는 사용자들에 의해 브랜드 이미지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을 수는 없다. 회사마다 고객들이 선호하는 매체를 사용하여 고객과 연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 자사가 선도적인 위치를 잡기 위해서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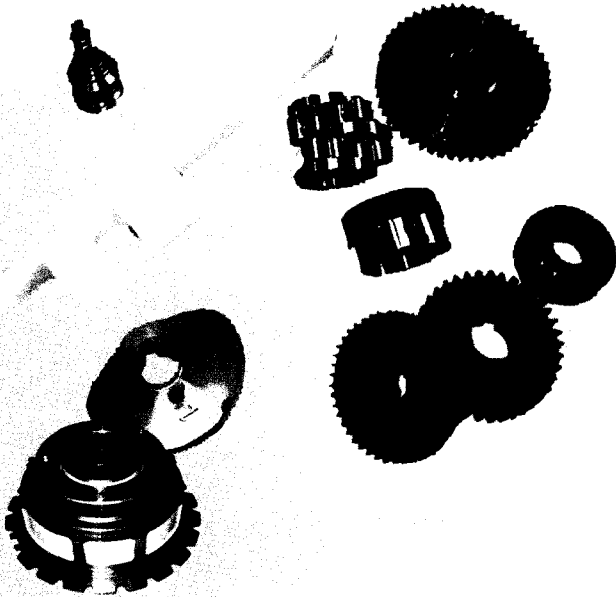
한편, 기업에서도 소셜 미디어를 적절히 사용하면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 예컨대 소비자가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실시간으로 반응하여 자칫 브랜드 명성에 흠이 갈 수 있는 소문을 발빠르게 대처하여 막아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소셜 미디어 매니저인 매들린 니콜라우스(코닥)는 “코닥은 이미 4년 이상 소셜 미디어를 활용해 왔다. 소셜 채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다양한지, 브랜드와 관련된 소문을 무시하면 어떤 곤란을 맞는지 충분히 학습했다.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여 고객들과 관계를 맺기도 하고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문의사항에 재빠르게 답을 주기도 한다. B2C 및 B2B 이용자 모두에 대한 소셜미디어 전략을 갖고 있으며 고객이 많이 이용하는 채널에 늘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해외4 밥스트 그룹

부품 가격 인하

밥스트 그룹에서 자사 기기의 부품 일만 여 개에 대해 최대 40%까지 가격을 낮춘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이커터, 폴더 접착제(Folder Gluer), 플렉스 인쇄기, 열박인쇄기(Hot Foil Stamping Machinery)에 이르는 대부분의 기기에 대한 부품 단가가 크게 인하된다. 인하폭은 평균 23%로 벨트, 체인, 클러치, 브레이크, 모터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밥스트그룹의 영국-아일랜드 지역 내일 존스 총괄상무이사는 “이전에는 십여 개의 공급 업체를 통해 구매하였다면 현재는 수천 개의 업체를 통해 구매하고 있다”며 “이로써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절감 효과를 고객들에게도 전하게 되었다. 우리 그룹은 업계의 가격 동향을 주시하고 있으며 이와 동떨어져 움직이지 않는다”며 가격인하 결정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가격 인하는 2009년 밥스트 그룹에서 시행한 부품 및 자재 공동 관리 시스템(CIM)의 성과라는 평가이다.

CIM 시스템을 통해 세계 각 지사의 부품 보유 정보 및 지역별 부품 재고 현황을 파악, 납품 기간 및 배송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해외5 안탈리스 맥노튼사 스타픽스 제품 판매 착수

영국의 지류 유통업체인 안탈리스 맥노튼사는 스타픽스(핀란드 제조사)의 제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스타픽스는 필름에 다양한 문양이 인쇄되어 있는 스티커의 일종이며 접착제없이도 접착이 가능하다. 재질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한 번 사용하고 나서도

재활용이 용이하다. 돌, 플라스틱, 금속, 패브릭, 세라믹, 바닥, 유리, 나무 등의 재질에도 자유롭게 접착이 가능하여 제품 광고, 거리 마케팅, 캠페인 광고, 잡지의 삽지, 포스터 등에 이용, 포인트로 활용할 수도 있다. 백색과 투명으로 출시되었고 오프셋, 평판 UV 잉크젯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HP 인디고 등급으로도 가능하다.

이 회사의 옥외 및 전시 광고 담당 매니저인 크리스 그린은 “스타픽스는 고급 재질인 폴리프로필렌(100% 재활용 가능)으로 제작돼 종이 인쇄와 비교해도 품질 면에서 뒤지지 않고 접착제 없이 다양한 형태로 광고에 활용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필름 타입이라 양면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아 몇 번이고 위치를 바꿔 다시 붙여도 표면에 흔적이나 상처가 남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제품의 접착성은 대략 수개월간 지속된다. 판매 전략에 대해서는 고급 제품에 대한 대규모 디스플레이 인쇄사를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밝히며 차별화와 부가가치의 지속성 등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타픽스는 창의적이면서도 상상력을 자극하는 디자인과 인쇄술로 향하는 새로운 문을 열어 주었다”는 평가와 더불어 “이와 같이 획기적인 제품이야말로 안탈리스 맥노튼사가 지류에 제한되지 않고 그 이상을 유통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외6 플린트 그룹

UV 바니시 등 신제품 출시

플린트 그룹의 미디어 프린트 부문에서 UV 바니시(vernish)를 비롯하여 다양한 제품을 새롭게 선보였다. 지난 2월에 유럽 시장을 대상으로 UV 매엽 잉크(울트라킹6100) 및 오프셋 운전 잉크(울트라킹7730) 시리즈를 출시했다. ‘울트라킹7730’은 고속 UV 매엽 및 웹 인쇄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

가장 큰 장점은 인쇄에 대한 안정성으로 알코올 성분이 낮아도 인쇄는 큰 지장이 없는 점이라고 밝혔다. ‘울트라킹6100’은 코트지/비코트지/보드/PE 라미네이트 보드 용으로 생산된다. 최신형 UV 잉크로 인쇄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번 신제품 출시에서는 UV 매엽 오프셋 블랭킷 제품으로 ‘데이그래피카 4100’이 함께 선보였다. 밥 모세달(트랜스퍼 미디어 제품 경영 이사/플린트 그룹)은 “데이그래피카 4100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긍정적”이며, “망점이 선명하고 입자가 부드러울 뿐만 아니라 얼룩이 잘 생기지 않고 번지지 않아 깨끗하게 제작된다는 평가”라고 밝혔다. 이 제품은 스페인, 영국 독일 등지의 UV 프레스 및 포장 업체, 소비자, 매엽 제조사들에 의해 이미 테스트를 마쳤다.

신제품

쿼크 익스프레스9 출시 모바일 디지털 출판 시장 겨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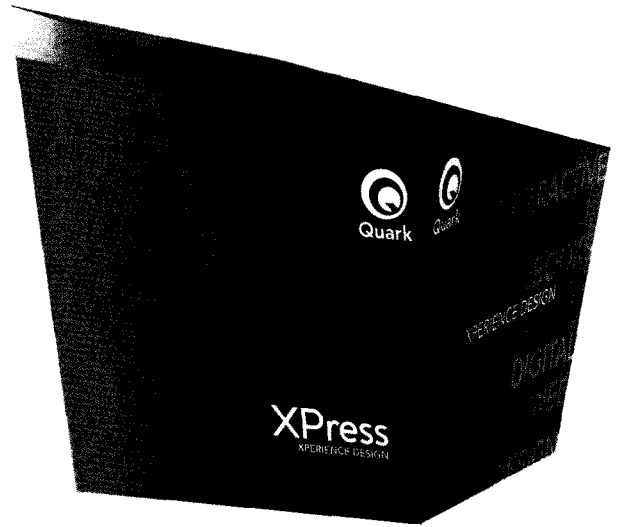
쿼크사의 데스크탑용 출판 소프트웨어 쿼크익스프레스9가 모습을 드러냈다. 디지털 출판과 모바일 콘텐츠 제작 등에 적합한 여러 가지 기능을 새롭게 갖추고 있다. 쿼크사는 이번에 출시된 신제품 쿼크익스프레스9를 소개하면서 디지털 출판, 디자인 자동화, 제작 효율성 향상의 세 가지에 방점을 찍었다고 밝혔다. 쿼크의 가빈 드레이크 마케팅부사장은 “쿼크익스프레스9의 주 고객은 부가치마케팅을 추구하는 사업자가 될 것”이라고 밝히며 “이번 제품을 통해 인쇄사의 가능성이 구현될 것”이라고 평했다.

디지털 출판 소프트웨어

디지털 출판용 소프트웨어라는 이름에 걸맞게 쿼크익스프레스9는 인쇄는 물론이고 웹이나 플래시, 기타 디지털 기기를 모두 지원하고 매체에 맞게 다양한 포맷으로 콘텐츠를 디자인할 수 있는 툴이 갖추어져 있다. 가빈 드레이크 부사장은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컴퓨터 기반 디지털 출판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게 될 것”이라는 포부를 전하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컴퓨터 기반 디지털 출판이 비용과 노력 면에서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아무도 시작하지 않았다”며 “별도의 개발사나 프로그래머가 관여하지 않고도 쿼크익스프레스9만으로 아이패드, 블리오 이리더(Blio e-reader), 이퍼브(ePub) 포맷용 디지털 출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콘텐츠를 재활용하여 이용할 수도 있고 아이패드 용으로 비디오/오디오 플레이어, 슬라이드쇼, 팝업창, 버튼, 하이퍼링크 등 새로운 콘텐츠를 따로 만들 수도 있다.

쿼크익스프레스 9는 블리오 이리더(Blio eReader/ 전자책 뷰어 프로그램/ 무료, 멀티플랫폼 지원)를 직접 지원하는 유일한 편집 소프트웨어이기도 하다.

이퍼브(ePub/ 공개 전자책 표준 소스/ 국제 디지털 출판 포럼, 개발)로 불러올 수도 있다. 따라서 텍스트 기반 전자책을 제작, 이를 애플 아이북스, 바네스 앤 노블 누크, 아마존 킨들과 같은 전자서점을 대상으로 출판할 수도 있게 된다.



디자인 자동화 기능

디지털 출판에 대한 새로운 기능과 더불어 디자인 자동화 툴이 강화되었다.

- **Conditional styles** : 자동 스타일링을 위한 강력한 스타일링 규칙을 제공한다.
- **Bullets and Numbering** :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에서 작성한 문서와 호환 가능하며, 불러온 목록/불러오지 않은 목록의 구분과 복잡하게 겹쳐져 있는 아웃라인 등을 쉽게 체계화할 수 있다.
- **Callouts** : 박스나 그룹을 텍스트와 같이 사용자가 지정한대로 자동으로 움직인다.

가빈 드레이크 부사장은 “사실 이런 기능은 이미 사용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수동으로 조정하여 설정해야 했다”고 설명하며, “하지만, 이제 쿼크익스프레스의 자동화 기능을 이용하면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제작 효율성 향상

이 외에도 새롭게 추가된 기능으로 작업 과정이 간편해진다.

- **ShapeMaker** : 독특한 형태의 도형을 손쉽게 제작할 수 있다.
- **ImageGrid** : 이미지를 불러오고 삽입하는 과정이 간편해진다. 이미지 레이아웃 옵션이 다양해졌고, 캡션 기능도 추가됐다.
- **Linkster** : 텍스트 상자에 대한 링크 해제 또는 재링크 작업이 단순해진다.
- **Cloner** : 아이템이나 페이지를 복사하여 다른 페이지나 레이아웃에 적용할 수 있고 레이아웃끼리 연결하거나 분리할 수도 있다.

쿼크익스프레스 9는 올해 4월부터 미국에서 판매가 시작되며 가격은 라이선스를 모두 구매할 경우 \$799 (한화 약 900,000원), 쿼크익스프레스8 또는 쿼크익스프레스7에서 업그레이드 라이선스를 구매할 경우는 \$299 (한화 약 340,000원) 이다. ➡

출처 _ www.printingnews.com(미국) www.printingweek.com(영국)

번역 _ 정희경 차장 heekyung@print.or.kr